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4주일
제37권 33호(가해) 2017년 7월 9일

[묵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

철부지(철不知)

세상에는 안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행동한다.

자칭 현자란 자신의 논리를 자랑으로 삼고,
모든 것을 아는 듯이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하느님의 지혜는
자신의 미소함과 연약함을 알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느님께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내맡기는 이들에게 나타난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깨끗한 자라고 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커다란 멍에를 지웠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들처럼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나약한 이들을 받아들이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강제지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7,8월 방학 미사없음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 서성용 베드로, 이승익 헤로, 이순자 레지나, 이용식 베드로, 이영순 아네스,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효 & 박 레이몬드
	(생)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홍정림 요안나, 손석 스테파노,
주일 낮 미사	(연) 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김진엽 마리아, 이경영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송인현 바오로, 홍다두 & 장데레사 & 신보나파시오 & 송요안나 & 홍방지거 & 홍아오스딩 & 김요셉 & 신수산나 & 홍가스탈 & 차마리아 & 박영진, 김정례 수산나, 김중환 야고보, 김덕영 & 김옥영, 김주일 미카엘, 변진섭다두, 최경숙 수산나
	(생) 손석 스테파노, 정정현 베네딕다 & 박명순안나, 송명환 베드로, 유철희 바오로, 오스텔라 & 오테레사 김정희 마리아 & 주영애제마 & 박혜경 레나타 & 권영옥 루시아, 이영애테레사, 정그레이스 & 김토마스가정, 정우석 루카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즈카리아(Zechariah)9,9-10

화답송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이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
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
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
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불드시
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9,11-13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마태오(Matthew) 11,25-30

영성체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
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오염과 기후 변화

그러나 우리 산업체제는 생산과 소비의 과정 끝에 나오
는 쓰레기와 부산물의 처리나 재사용 능력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자원을 보존
할 수 있는 순환방식을 여전히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사용의 최소
화, 소비절제, 효율극대화, 재사용, 재활용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 하는 것이 지구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버리는 문화에 맞서는 한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은 극히 한정된 진척만을 이루었을 뿐입
니다.

공공재인 기후

23. 기후는 모든 이의, 모든 이를 위한 공공재입니다. 세계
적 차원에서 기후는 인간 삶의 많은 필수조건들과 관련 되
어있는 복잡계입니다. 매우 확실한 과학적 견해 들은 우리
가 현재 기후체계의 심상치 않은 온난화를 목격하고 있다
는 사실을 보여줍니다.최근 수 십년간 온난화는 해수면의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켰으며 개별기상 현상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원인을 밝혀낼 수는 없지만 심각한 기상 이변현상
의 증가와 온난화를 연결시켜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온난화에 맞서 싸우거나, 최소한 인간이 이
러한 온난화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근원들에 맞서 싸우
려는 생활양식과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필요 하다는 것을
인식 해야 합니다. 화산활동, 지구궤도와 축의 변화, 태양
의 활동주기와 같은 다른 요소들도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
지만, 많은 과학적 연구는 최근 수 십년 간의 지구 온난화
가,대부분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곧 이산
화탄소, 메탄, 산화질소와 같은 화학물질들의 농도가 매우
짙어졌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
다.이러한 기체들은 대기 중에 집중되어서 지표면에 반사
된 햇살의 열이 우주로 흩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세계
적 에너지체계의 중심인 화석연료의 엄청난 사용을 기반으
로 하는 개발 방식 때문에 문제가 더욱 악화됩니다. 토지사
용변화, 특히 농사를 목적으로 한 삼림파괴의 증가 또한 이
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82	182	231
봉헌	255	255	270
성체	306	306	289
파견	187	187	183

가난한 마음에서 하느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시작은, 파견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드리는 감동 어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 11,25-26)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는 제자들을 통해 하느님 나라 선포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참된 동기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당신께 문을 닫고 있을 때 그분의 신비를 이해하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가끔 우리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다 선명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할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이들은 고생하며 무거운 짐으로 비틀거릴 때마다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29-30)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걸머지신 방식대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면, 나의 영혼은 평화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는 겸손과 온유로 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온유함을 잃어서 삶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겸손을 잃어서 주고받은 상처가 큼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 삶을 그토록 무거워하며 허덕입니다. 이는 지난날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증명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서는 겸손하고도 온유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나를 당신의 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매일 매일 응하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이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에 퍼져 나갑니다.

화답송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우산을 접듯

고개를 숙이면 급실거린다고 할까 걱정이 되고

허리를 굽히면 비굴해 보일까 염려가 되고

무릎을 꿇으면 패배로 비취질까 정말 조심했었지,

뜨거운 별에 양산을 펴다 설핏 들었네.

거침없이 은뭍을 이단 삼단으로 접었다가도

망설임 없이 몸을 펴 비를 맞고 별을 막아서는 우산보다

도대체 네 몸이 더 나은 것은 또 뭐냐는.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송인선 안젤라	남성철 베네딕도	해설자	유지아 클라라	신덕례 데레사	박은혜 클라우디아
제1독서	송인선 안젤라	박혜경 레나타	이영식 크리스토퍼	제1독서	정인옥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정인옥 아오스딩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한정숙 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데레사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제물봉헌자			토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주일학교 방학기간 주일 미사 조정 안내

주일학교 방학기간에 9시반 학생미사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성인 미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일미사는 아침 7:30과 11:00 미사만 있습니다.

- 실시기간 7월2일(주일)~ 8월 27일(주일)까지

◆남가주 여성 제 43차 꾸르실료 교육 이수자 환영식

- 수강생 : 변복순 베로니카, 신민숙 카타리나
- 환영식 :오늘 주일(9일) 4시 PM, 강당
- 문의 : ☎(909)709-3181

◆ 요셉회 7월 정기모임

- 일시 : 세째 주일(16일) 11시 미사 후
- 장소 : 강당
- 문의 : 정기은 비오 ☎ (310) 780-2789

◆ 후보 광고에 협찬해 주신 광고주들께 감사 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후보 광고를 후원해주시는 광고주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7월부터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됩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해 주십시오.

◆제30차 성령쇄신대회

- 주제: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1코린 3,17)
- 일시: 8월 27일(토) 오전8시-오후10시,
8월 28일(주일)오전8시-오후6시
- 장소:Redondo Beach Performing Arts Center
(1935 Manhattan Beach Blvd, Redondo Beach, CA 90278)
- 강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님 (서강대 교수)
안규도 도미니코 신부님(인천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
최영배 비오 신부님 (들꽃마을 창설자)
- 참가비: \$20 (당일 현장 \$25)
- 준비물: 목주, 도시락,물
(도시락주문 가능-8/13 주문마감, \$7/1개)

주의사항:장소사정상 국물이 있는 도시락은 절대 불가합니다. 도시락은 장내 반입이 안되므로 바깥 텐트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상하지 않는 음식을 준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주최: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 문의: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서로 인사 합니다. ☺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 9일 : 흥합미역국 (\$3, 토복 1,2)
- 7월 16일 : 열무 콩보리밥 (\$3,하버/카슨)

지난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강인모 고은별 구자운 김관기 김광자 김상규 김상기 김선제 김성택 김양금 김옥찬 김여순 김정웅 김정희 류현옥 민경근 박씨니 박인식 박종민 박준범 방정이 방정복 배태임 서용숙 송재훈 안재만 양영자 오일순 우영희 이근모 이근태 이복임 이상석 임의웅 장영진 전정일 조소영 주대중 주용순 지경수 최기남 최동한 한장환 한창주 홍영식	성전헌금	강인모 구자운 김관기 김광자 김상기 김선제 김양금 민경근 박씨니 박인식 방정복 서용숙 안재만 양영자 이근모 이상석 장영진 주대중 주용순 지경수 최기남 한장환 한창주
	합계:\$5,420		합계 : \$1,460
주일미사헌금 :\$2,283	주보광고비 : \$840	2차헌금 : \$519	성물판매 이익금: \$ 293.50
		감사헌금\$300(김광호)	

남가주 소식

◆성령안의 새 생활 세미나 남가주 청년 성령기도회

KYCR New Life in the Holy Sprit Seminar

"Be Still" (Psalms46:11)

- 제목 :청년들을 위한 기초 성령세미나
- 일시 : 8월 25일(금) 오후5시~27일(주일)오후4시
- 장소 : 테메큘라 꽃동네 피정의 집
- 대상 : 하느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젊은이
- 참가비: \$150(당일 현장 \$25)
- 문의: Jeane Yoon ☎(562)676-7933,

김 모니카 ☎(310)999-1142

◆작은 예수회 L.A. 분원 기쁨행사 안내

- 주례사제 : 양승욱 바오로 신부님
- 일 시 : 7월 15일 (셋째 토요일), 11시
- 장 소 : 작은 예수회 LA분원
(올림픽과 실로암 약국이 있는 아라파호 골목길)
1137Arapahoe St.
Los Angeles, CA 90006
☎(213) 387-3301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2박3일 침묵피정

- 주최 : 미서부 한인 CLC
- 지도 : 박준성신부 (예수회)
- 일시 : 8월4일(금)~6일(주일)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Oceanside, CA
- 마감 : 7월 23일(주일)
- 문의 : 하 세실리아 ☎ (323)578-2230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소 공동체
부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역 /
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매히틸다
(713-4926)

배태임 안나
07/0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리치오
(781-0787)

이근태 세르지오&정기은비오
07/15(토) 오후6시성당 장당

3

한길선펬
스콜라스티카
(218-7824)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김주량 요한
07/15(토) 오후5시

2

김 아네스
(419-309-7256)

김다두 &아네스
07/08(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윤선희 로사
07/16(일)12시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
3356)

1

07/21(금)오후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07/18(화)오전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07/09(일)12시30분 성당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최미열 클라라
(938-8089)

황안젤라,조안젤라,이엘리사벳
07/16(일)오전11시 델톤과

2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
나
(997-5545)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07/14(금) 오후7시 성당2층R3

2

1,2반과 같음

3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고 체칠리아
07/14(금) 오후7시

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안희정스콜라스티카
07/09(일)야외모임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장 안드레아
07/14 (금) 오후6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07/12(수)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 단체모임

1시

다음주일 단체모임

과학자 하느님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다양한 물리, 화학 실험을 했고 숫자와 씨름하며 계산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데이터와 실험으로 가득한 건조한 일상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느낄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일상에서 하느님을 자주 느끼며, 제법 구체적으로 그분의 실재를 느끼고 있는 편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자연 현상들이 하느님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과학적인 현상들을 살펴보면 모두 하느님의 뜻이고 섭리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만든 하느님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에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거스를 수 없는 과학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칙들의 이름만 들으면 어렵고 거창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매일 위대한 하느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죠. 이를테면, 차를 마시기 위해 준비한 뜨거운 물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서 방안의 온도와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뜨겁던 물이 더 뜨거워지고, 차갑던 방안이 더 차가워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이것이 열역학 법칙입니다. 향기로 온 꽃 한 송이를 방에 두면, 향기가 전체로 퍼져 나가 방을 채우죠. 이건 전달 공학입니다. 물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 높낮음이 없어지죠. 이건 물리학입니다. 바람은, 좁은 창문으로는 세차게 불고, 넓은 창문으로는 천천히 불어와 방으로 들어오는 공기량을 같게 만듭니다. 이건 유체 역학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각각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모두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많은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며 당신이 설계한 우주의 섭리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를 알리고자 하는 당신의 강한 의지를 압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내 인생에 투영하여 삶의 모습을 다잡곤 합니다.

넘치면 나누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모자라면 구하라는

당신의 뜻을 새기며 욕심 없이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

이러한 법칙들에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많이 주셨을 때는 그것을 세상을 위해 나누라고 주신 게 아닐까요? 특별한 재능은 사람들과 나누고 세상을 즐겁게 하라고 주신 것이며, 엄청난 부를 허락하신 것 또한 없는 자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며, 뛰어난 두뇌는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위정호 알로이시오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환경공학과 교수

[이게 궁금했어요]

자살한 사람들에게는 교회 장례식이 금지되는 까닭이 무엇인지요?

☞ 우선 자살은 “창조주께 대한 극도의 모욕”(「사목 현장」 27항) 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살은 인명경시 풍조를 조성하는 탓입니다. 자살은 자포자기적 삶의 형태이기에 사회구성원에게 파급되어 공동체의 다른 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때문에 과거의 교회는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장례식과 연미사를 금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는 자살자에 대해서 사목적인 배려 없이 무조건 “자살은 죄이다. 자살에는 구원의 은총이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개인의 불신앙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전하는 현장이기에 죽음에서 살려내는 생명과 희망의 공동체이며 저장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구하신 까닭은 모든 생명이 지닌 가치와 고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니깐요. 이것이 교회가 인류에게 온 몸으로 선언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완전한 지식과 자유의지로 행하는 직접적 자살을 옹호하는 사상과 행동에 반대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며 하느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삶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교회는 돕습니다. 교회는 좋은 천국에서 모든 이가 만나 일치하여 함께 사는 일을 희망합니다.

◆ 장재봉 신부 / 선교사목국장

사도로 부터 이어오는 교회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활약상을 전해줍니다. 사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가르침을 선포하며, 같은 전례를 행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믿음으로 사랑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이어 후세에 전했습니다. 그 후 교회는 믿을 교리를 통일하기 위해 사도들에게서 전수받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간추려 입교예식과 전례 중 신앙고백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신경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확정되기까지는 약 3백 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는데 그동안 내용은 같지만 표현을 달리한 여러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례 중에 사용하는 사도 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입니다. 이 신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인 교회’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의 보살핌으로 한결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다 같은 하나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고 모두가 같은 희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교회’란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백성으로 모으신 거레이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약으로 이루신 하느님의 나라이며,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어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란 신앙의 내용과 공동 예배 예식인 전례가 사도로부터 전승된 것이며 특히 교회 통치가 사도 베드로의 정통 후자인 로마 주교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의 관할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같은 교리를 신봉하고 같은 전례를 거행하며 로마 주교, 즉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로 모시는 특성을 가지는 교회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이 특성을 종합한 것이 ‘가톨릭’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를 ‘보편되다’라는 의미의 옛말 ‘공번되다’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빈첸시오 성인은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믿어온 것”이 바로 공번된 것, 가톨릭의 신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Quiz 본문을 읽고 괄호를 채워 보세요.

가톨릭 교회는 ()이고, ()하고 ()되며
()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입니다.

		주		간	청	부	
		님		구		상	속
천	미	의	기	도		기	
양		기			그	리	스
					도	의	몸
		포	도	주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학교구홍보국

<6월25일자 정답>

「성경 속 동식물」 26 정의를 심판하시는 하느님을 상징하는 사자

성경에서 사자는 정의를 심판하시는 하느님을 표상한다.(욥 10,16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앙을 가져오는 암흑 세력이나(1베드 5,8 참조), 사악한 자를 덩불 속의 사자(시편 10,9 참조)로 비유하고, 임금의 분노를 사자의 으르렁거림으로(잠언 19,12 참조) 비유한다. 또 유다 지파를 사자 새끼(창세 49,9 참조)로 사자들을 심판의 수단(1열왕 13,26 참조)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사자를 나라의 흥망성쇠, 선과 악, 전능함과 약함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썬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로) 310-908-8823
CA Inc.Lic.#0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녹스 등 각종그릇, 한국택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그린 약국

(310)504-0600

플라자 약국

(310)530-3010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현규 요셉 양희자 플라자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상 대기

TEL)310-516-8282

## 스킨케어

김영란 올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